

선교 헌신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다. 우리 교회에 10여명의 램넛트들이 군인으로 복무 중이고, 자체 군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오늘 중요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 군 선교가 왜 중요한가? 전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1)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어느 나라도 전쟁이 없어야 한다.

① 그러면 군인은 왜 있는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그 속에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가 있다)

전쟁이 나면 나라는 완전 멸망이다. 혹시 전쟁에 이겨도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월남전, 한국전에서의 피해)

② 삼상7:13-14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민족적인 기도를 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고 했다. 블레셋 사람은 막고, 아모리 사람들과는 평화와 있었다고 했다. 둘 중의 하나다. 대적은 무너뜨리고, 안 싸울 수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깨어있는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국가와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2)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미국은 계속 세계 전쟁 속에 참여해야 하는 나라이다.

① 문제는 전쟁을 다녀오고 난 뒤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 심각한(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최근의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이 고통을 겪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참지 못하다가 각종의 중독에 빠져 심각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② 이것이 단순한 상처나 정신 문제로 끝나면 고통으로 끝나는 수준일 것이다.

사단이 사용하는 영적 문제로 발전하니 치유할 방법이 없고, 치명적인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영적 문제를 누가 도와 주어야하겠는가? 교회다. 그냥 교회 아니다. 영적인 답을 가진 복음 가진 교회다.

3)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황금 여장이다.

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들어간다. 군 복무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도 다니고, 퇴역하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군대가 생명을 나눈다는 점에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 서로의 숨겨진 상처나 형편을 알고,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주면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② 군대는 선교를 위한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다. 미국의 군대는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하는 나라다.

한국,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더 중요한 것은 모델랜드에 간다. 그 나라의 통역자들만 살려도 큰 문이다.

③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전도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노예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보디발(창39:3), 애굽의 장군이였다.

포로로 잡혀간 중을 통해서 숨겨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아만(왕5:1-14), 아람의 장군이였다.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하다가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한 고넬료(행10:9-33), 로마의 장군이였다.

특징이 뭐가? 군인이 아닌데, 한 나라를 움직이는 막강한 장군들을 전도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겠는가? 오늘 군인이든 아니든 이 군 선교 축복에 대한 언약을 잡으면 같은 문이 열릴 것이다.

2. 그러면 이 군 선교를 위해서 군에 있는 램넛트(군선교사)들이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본문 마지막 50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그 손에는 칼(무기)이 없었다”고 했다. 무기가 없는데, 이긴 것이다. 이긴 정도가 아니다. 대적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이다. 세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면 된다.

1)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다.

① 43절에 골리앗이 다윗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했다. 이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온 세상의 싸움과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조건 영적 싸움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자이다(엡6:11)

② 당장 다윗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원래 다윗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날 정도였다(삼상16:23)

③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이 무엇을 하면 100%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귀의 머리를

밟고(창3:15),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요일3:8)께 집중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하라(영적 씨앗의 축복)

이 축복을 못 누리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죽어라 일, 공부 다해놓고, 성공해놓고,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2) 믿음의 싸움에서의 승리다. 다윗이 세 번 믿음의 고백을 한다.

① 45절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다.

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도 그것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썩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이다.

② 46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

마귀가 언제 벌벌 떨고 도망가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언을 할 때이다(롬10:10)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 이 성과 왕과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이 붙이겠다는 사실을 붙잡고, 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돈 것이다. 한 사람도 불신앙하고 불신앙을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 하와가 그것을 못해 무너졌다.

③ 46절 후반절에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셔야 하는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해 달라고 이유를 붙잡고 도전하라. 한 사람만 이유 붙잡고, 도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

3)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싸움에서의 승리다.

① 다윗 한 사람이 영적 싸움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 전 블레셋이 굴복을 한 것이다.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스코틀랜드를 침공하려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10만의 군대보다 닉스의 기도가 두렵다”.

②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흐름은 문화와 관계가 있다. 흐름과 문화를 바꾸고 치유할 때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내 군대에서 영적 흐름을 바꾸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한다.

결론-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군인들은 각자의 부대와 지역에 파송된 군 선교사들이다. 모든 성도들은 내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한다.